

서구의회의원선거

서구 나산거구 (변동/내동/가장동/괴정동)

더불어
민주당

책자형 선거공보

공감으로
듣고
숫자로
책임집니다

주민의 세금, 한 푼까지 챙기는

1-가

서구의원 후보

신진미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서구의회의원선거 서구 나선거구

1. 인적사항

| 기호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성별 | 생년월일(세) | 직업 | 학력 | 경력 |
|-----|---------|-------|----|------------------------|---------|---------------|--|
| 1-가 | 더불어 민주당 | 신진미 | 여 | 1965. 08. 01. (60세) | 서구의회 의원 |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현)대전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대전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재산상황(천원) | | | | | 병역사항 | |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후보자 | 배우자 | 18세이상 직계비속 |
| 1,336,571 | 1,336,571 | - | - | 고지거부 | 병역의무 없음 | - | 장남 : 육군병장 (만기전역) |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 | | | 후보자 전과기록 |
|------------------------------|-------|---------------------|-------|----------|
| 구분 | 납세액 | 체납내역 | | |
| | | 체납액 누계 | 현 체납액 | |
| 계 | 8,369 | 175 (23. 06. 27) | 0 | 해당없음 |
| 후보자 | 8,369 | 175 (23. 06. 27) | 0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 |
| 직계비속 | | | | |

1

주민의 세금, 한 푼까지 챙기는

1-가. 서구의원 후보

신진미

주민 곁에서 듣고 의회에서 끝까지 따졌습니다

신진미는 화려한 정치보다
생활의 불편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어르신의 하루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골목의 안전과 예산의 낭비를 함께 살피왔습니다.

정직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듣고,
행정의 숫자는 차갑게 따지겠습니다.
공감은 말로, 책임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제대로 일한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한 푼의 세금까지 꼼꼼하게

한 사람의 삶까지 따뜻하게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입니다.



1,047,067,000,000원.
2026년 대전 서구의 당초 예산 규모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서구 예산,
누군가는 숫자로 보고
신진미는 **주민의 생활**로 읽었습니다.

예산을 아는 사람
살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신진미는 과거 금융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전시성 예산은 더 엄격하게,
돌봄·복지·생활 인프라 예산은
더 꼼꼼하게 살펴왔습니다.

낭비를 줄이는 일도 정치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돌리는 일도 정치입니다.
저는 **숫자뒤에 가려진 주민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한 푼은 작아도
낭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동네의 이름도 주민의 자존심입니다

변동의 미래는
남이 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주민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진미는 '변동' 명칭 문제를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지역 이미지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느냐, 유지하느냐가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진미는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합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다시 붙이는 일,
주민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감으로 듣고 숫자로 책임집니다

돌봄은 선의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한 밤,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어 막막한 낮.
돌봄의 공백은 곧 삶의 불안입니다.

신진미는 돌봄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루지 않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야간·긴급 돌봄, 병원동행과 생활지원까지,
서구의 돌봄을 '버티는 복지'가 아니라 '안심하는 인프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도, 부모를 돌보는 집도,
혼자 버티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만 버티는 돌봄이 아니라

서구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으로

돌봄이 든든해야 서구의 하루가 안심됩니다

핵심 공약 「돌봄은 인프라다」

-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 ☑ 야간·긴급·병원동행 포함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 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 거점 전환



어르신이 편해야 동네가 따듯합니다

건강은 멀지 않게,
이동은 불편하지 않게,
일상은 외롭지 않게

신진미는 어르신 정책을
단순 복지로 보지 않습니다.
가까운 운동공간, 편한 이동수단,
안부를 살피는 촘촘한 연결망까지.
어르신의 건강·이동·고립 문제를
생활권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스마트 경로당도,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실내형 프로그램도
어르신의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를 넘어
잘 사는 노후로



“의원님”보다 “진미씨”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주민 곁에서는 더 낮게,
의회 안에서는 더 단단하게

저는 큰말보다
끝까지 듣는 태도를 믿습니다.

화려한 정치보다
생활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 앞에서는 먼저 듣고,
행정 앞에서는 끝까지 따지고,
약속한 일은 결과로 남기겠습니다.

가까워서 편한 사람,
일할 때는 믿음직한 사람.
신진미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공감으로 듣고
숫자로 책임지는 사람
신진미를 다시 써주세요



숫자로 말하는 의원 **신진미**

<https://sjm.aiclaude.kr/>

